

# 식민지주제의 동향(1914~1945)\*

## —전북 『益山郡春浦面土地臺帳』의 분석—

정 승 진\*\*

1910년 식민지화 이후 한국 농촌사회는 일본 경제권 내에서 식량공급지로 위치지어지고, 농업생산력의 급상승과 농민궁핍화의 심화라는 상호 모순되는 상황을 연출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식민지주제하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간의 연구자들이 식민지주제에 관심을 집중하였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글은 개항장 군산의 배후 농촌지대인 익산군을 사례대상으로 하여 총독부의 농업정책이 식민지주제에 가한 영향력을 토지대장을 이용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는 것이다. 사례의 대상인 익산군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춘포면은 한국의 최대곡창지대인 전북 평야부 도작지대에 속한다. 익산지역은 1899년 군산의 개항 이후 일본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철도 및 도로의 건설, 시가지의 조성 등 급속한 개발 붐(boom)을 타게 되었다. 1910년에는 全益水利組合이 설치되고, 1920년대 중반부터는 萬頃江改修工事が 장기간의 산업정책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개발적 요소는 이 일대의 농업환경을 크게 개선시켰다. 경지의 질적 상태가 호전되어 미곡생산량이 급증하고, 경지의 분할이 가속화하면서 보다 집약적 농업을 위한 호조건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역 내 조선인 토지소유자의 토지상실이 진행되면서 일본인 중심의 식민지주제는 더욱 발전하였다. 1930년대 전반 농업공황을 즈음해 지주제는 일정한 부침을 겪으며 정체상태를 보였지만, 토지소유집중도라는 지표로 보는 한 지주제의 추이는 높은 수준에서 감소하지 않은 채 한국의 지배적인 생산관계로서 견고하게 존속하고 있었다.

핵심주제어: 전익수리조합, 만경강개수공사, 필지분할, 식민지주제, 토지소유집중도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N5

\* 자료의 입수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신 김재훈 교수님, 마쓰모토다케노리 교수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연구전임장사, 전화: (02) 760-1275, E-mail: tateusch@hanmail.net

논문투고일: 2004. 3. 7 수정일: 2004. 4. 23 게재확정일: 2004. 5. 31

## I. 문제의식

식민지기 조선 사회는 동아시아지역 가운데에서도 지주제가 고도로 발달한 지역이었다. 최근 1930년대 조선 공업화와 관련해 제기된 이른바 ‘근대적 중간적 지주제’설은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지주제 비교사론을 소개하고 있다.<sup>1)</sup> 각국의 小作地率을 보면, 1920~1930년대 일본에서 府縣別 소작지율은 대체로 40~50%이나, 1933년 조선 남부의 道別 소작지율은 60~70%에 달하고(경기 71.6%, 충북 66.3%, 충남 70.5%, 전북 77.1%, 전남 54.2%, 경북 55.4%, 경남 63.2%), 대만의 경우 1921년 50~60% 수준이다. 반면, 1930년대 중국 華北지방의 소작지율은 10~30%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조선과 대만이 일본 경제권 내에서 쌀과 사탕수수를 생산하는 식량공급지, 원료공급지로 기능하고, 그것을 위한 단작형(monoculture) 식민지지주제가 고도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대지주에 의한 지주적 토지소유도 근대적 지주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더욱 진전하였다. 50ha 이상의 대지주 소유지가 전 경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조선 전체에서는 10.4%, 더욱이 조선 남부지역을 보면 더 높아지는데, 가령 全北에서는 1930년에 100ha 이상 대지주의 소유지가 전경지의 24.7%를 점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1921년에 50甲(1甲은 약 1ha 弱) 이상 대지주의 소유지는 전 경지의 16.6%이다. 일본에서 1924년 현재 50ha 이상 대지주의 소유지는 6.5%인 데 대해서, 중국에서는 1934년 1,000畝(약 66ha) 이상 지주의 소유지가 전 경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5%에 불과하고 500畝 이상을 보아도 4%에 그치고 있다.

이상 소작지율과 지주적 토지소유 상황을 보는 한, 식민지기 조선의 지주제는 동아시아지역에서도 고도로 발전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북을 필두로 한 조선 남부지역에서의 발전은 동아시아 도작지대 가운데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이다. 그런데 ‘근대적 지주제’는 자본주의와 친화성이 높은 형태이기 때문에 식민지 조선의 경우 1930~1940년대 전반의 공업화 전개에 따라 지주제의 추이도 정체·축소국면에 들어선다는 것이다. 이른바 지주제 ‘쇠퇴설’ 또는 ‘위기설’이 그것이다.

종래 지주제의 추이에 대해서는 지주제 ‘심화론’<sup>2)</sup>과 ‘재편론’으로 양분되어 있다. 후자는 ‘발전둔화·정체론’<sup>3)</sup>과 모두에서 소개한 ‘축소·위기론’<sup>4)</sup>으로 분화

1) 中村哲 著, 安秉直 譯(1990) 참조.

2) 지주제 ‘심화론’의 대표적 성과로서 張矢遠(1989); 田剛秀(1984); 鄭勝振(1997) 참조.

된다. 1930년대 전반 농업공황과 각종 소작입법에 따라 지주제의 추이가 정체하고 있음은 기존의 연구사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그대로이지만, 향후 식민지 후기(1930~1945)에 지주제가 심화되었는가, 위기국면으로 재편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주제의 유형과 성격을 둘러싸고 여전히 재고의 여지가 남아 있다.

‘근대적 지주제설’이 제기하는 지주제의 쇠퇴는 1920년대 말 일본 농촌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근대 농업변동의 한 양상이다. 그 요인을 농업 측면에서 본다면 1920년대 農民一揆 등 농촌불안정에 따라 종래의 地主支持的 農政이 農民保護的 農政으로 급선회함에 따라 그와 같은 쇠퇴국면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도시지역의 공업화는 농촌의 과잉인구를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같은 상황은 식민지 조선에서도 시차를 두고 그대로 적용되어 농촌안정화 차원에서 조선소작령, 소작입법, 자작농창정사업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주제의 추이는 1935년 이후 1940년대 전반에 걸쳐 정체에서 위기국면으로 들어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총독부 농정의 일면만을 강조한 정책사 중심의 논의로서, 지주제에 관한 정책과 실태 간의 충분한 실증적 근거가 제시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식민지 조선의 경우 일본과 같은 공업화의 수준, 즉 농촌의 유희 노동인력을 충분히 흡수할 만한 수준에는 도달해 있지 못했던 것이다. 더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식민지성의 논리가 사상되어 있다.

식민지 조선 농촌은 일본 경제권 내에서 식량공급기지로써 기능하고 있었다. 식민지라는 정치적 상황에서 지주층은 식민통치의 안정을 위한 체제유지의 동반자로서 존재했다. 1930년대 전반의 농업공황, 총독부 농정의 변화에 의해서도 지주층의 존재의의는 결코 감소하지 않았다. 일본인 지주를 중핵으로 한 식민지지주제는 소작지율의 추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촌에 대량으로 존재한 소작농을 착취기반으로 하여 안정적으로 존속하고 있었다. 조선 농촌에서는 식민지 모국과는 상이한 정치·사회적 환경 즉, 식량공급기지로써의 역할, 체제유지의 동반자로서 지주층의 역할이 식민지지주제라는 계급적 착취관계를 강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시기인 식민지 후기(1930~1945년)의 지주제를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 이 글에서는 종래 정책사 중심의 서술방식을 벗어나 미시적인 지

3) 대표적인 연구성과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이종범(1988); 洪性讚(1992); 蘇淳烈(1994); 鄭然泰(1994); 이승순(2003).

4) 대표적 성과로서 宮嶋博史(1993); 鄭文鍾(1993); 박섭(1994) 참조.

역사회의 관점에서 지주제의 추이에 관심을 갖고자 한다. 이 글이 대상으로 하는 전북 益山郡지역은 농업지대 구분상 全北 平野部 稻作地區에 속하는 농업 선진지대로서, 식민지 농정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던 식민지 지배의 상징성이 높은 지역이다.<sup>5)</sup>

여기에서는 먼저 지역사회에 가한 총독부 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본 뒤에 지역에 소재하는 『土地臺帳』을 이용해 지주제의 추이를 구체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특히, 후자의 작업은 경지의 질적 상태와 소유관계의 변동이라는 두 차원에서 식민지 농업·농지정책과 지주제 실태와의 관련성을 재검토하는 연구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

## II. 익산군과 춘포면의 개발

사례대상인 익산군은 한국 최대의 곡창지대인 全北 平野部 稻作地帶에 속한다. 이 지역은 개항장 群山의 배후 농업지대로서 1899년 군산 개항 이후 일본인의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철도 및 도로의 건설, 시가지의 조성 등 급속한 개발 붐을 타게 되었다. 1910년에는 만경강 중류 연안에 全益水利組合이 설치되고, 1920년대 중반부터는 萬頃江改修工事が 장기간의 산업 정책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개발적 요소는 이 일대의 농업환경을 크게 변모 시켜 놓았다.

### 1. 철도부설 이후 익산의 성장과정

익산군은 전라북도 북서부에 위치하는데, 동북향과 서북향은 小丘陵地帶를 형성하고 北高南低型의 지세를 보이며, 대하천인 萬頃江과 錦江이 군의 남과 북을 위요하고 있다. 동남향으로는 만경강과 益山川을 사이에 두고 全州郡과 광활한 全北平野(일명 만경뜰)를 공유하고 있다. 익산군은 만경강의 중류 북안에 위치한다. 서남향으로는 臨沃平野를 경계로 沃溝郡에, 서북향은 군산 및 금강을 경계로 충남 舒川郡에, 북향으로는 江景沃野를 바라보며 論山郡에 접하고 있다.

익산군의 郡勢를 보면, 1914년 府郡廢合조치에 따라 舊益山郡(16개 면)에 龍

5) 이경란(1991); 蘇淳烈(1994); 松本武祝(2003) 참조.

安郡(5개 면), 咸悅郡(11개 면), 礪山郡(11개 면)의 3개 군을 합병한 결과, 현재의 익산군으로 확대·재편되어 1927년 말 현재 18개 면, 144개 리를 포괄하고 있다.<sup>6)</sup> 구익산군은 현재 군지역의 중부와 남부지역에 해당한다. 군청소재지는 湖南線 개통 1년 전인 1911년 金馬에서 현재의 南一面(現 裡里邑) 裡리로 옮겨졌다.

현재의 익산은 1912년 湖南線 및 群山線의 개통과 함께 급격하게 변모하였다. 교통상황을 보면, 湖南線이 신시가지인 裡리를 통과하고, 전주-군산 간 全北輕便鐵道(群山線)가 舊裡里 및 大場村을 경유하는 교통의 요지였다. 특히, 이리는 호남선과 全羅線(1930년 개통)이 갈라지는 분기점이 되면서 도시화의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리는 전라선이 개통된 이듬해인 1931년 익산면에서 분리되어 裡里邑으로 승격되었다.

이리의 부상과 함께 金馬와 參禮(전주군 관할) 등 전통 읍내들은 퇴조하고 있었다. 삼례는 조선 후기 이래 전통적 교통요지로서 四通八達한 지역이었지만, 이제는 철도부설 이후 이리가 그 역할을 대체하고 있었다. 단, 경성-목포 간 1등도로나 군의 동부지역인 礪山, 金馬(舊益山)와 參禮를 경유하고 있다. 전주-군산 간 1등도로는 군의 남부(五山面, 春浦面)를 통과하고, 2등도로는 없으며, 8線의 3등도로나 군을 경유하였다.<sup>7)</sup>

철도부설 이전 만경강 끝의 갈대숲 사이에 있던, 조그마한 시골 농촌에 불과하던 이리는 1912년 철도부설 이후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이리역은 서울과 군산항으로 이송되는 호남평야의 농산물 집산지·하역지로서 경제적 역할이 증대하고 있었다. 철도부설 직전인 1911년 3,000여 명에 불과하던 인구는 1910년대 말부터 1만여 명을 넘어섰다. 이리에는 많은 日人들이 來住하여 읍내에는 精米所, 釀造場, 棉花工場 등 각종 산업이 성업을 이루었다. 또 農場경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대교농장, 삼곡농장, 창전농장 등이 대표적이다.<sup>8)</sup>

한편, 春浦面은 군내 남동향의 만경강 북안에 위치한다. 동면은 익산천 및 만경강을 경계로 전주군에 접하고 있다. 1917년 행정구역의 개편결과 豆村面과 春浦面을 합병하여 춘포면이라 이르고 있다. 면 내에는 해발 50m에 불과한 春浦山이라는 야트막한 구릉이 있는데, 예전에는 만경강의 물길을 따라 바다 뱃길이 여기까지 미치고 있었다.

6) 이하 木原壽 編(1928) 참조.

7) 이상 익산군지편찬위원회(1981); 이리시사편찬위원회, 『裡里市史』 각 년판 참조.

8) 이상 山下英爾(1927) 참조.

〈표 1〉 益山郡 舊春浦面の 行政區域

新里名	舊洞里名
德實里	柴田里 新洞 德實里 回化里 新湖里 등
龍淵里	板門里 沙川里 新湖里 長淵里 紆西面 海田里 溫水里 등
仁壽里	弓月里 花坪里(新坪里) 返道里 文宗里 등
三浦里	三浦里 등
雙亭里	立石里 雙亭里 返道里 紆西面 新里(中新) 등
大場村里	新月里 大場村 澗里 回化里 江興里 古棧里 九潭里 등

자료: 越智唯七(1917), pp. 282~283; 趙在燮·蔡守煥(2000), pp. 341~356.

1917년 面廢合조치에 따라 춘포면은 益山面 石灘里, 大場村里를 춘포면에 편입하여 12개 리의 大面으로 확대·개편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면 내에는 軍山山(전북경원철도)이 大場村驛을 경유하였는데, 여기에 인구가 밀집하고 면사무소가 이전하면서 면의 新興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도로상황을 보면, 이리-삼례-高山 간 3등도로가 면내를 통과하고 金馬, 王宮, 八峰에 이르는 등외도로가 면을 경유하고 있다.<sup>9)</sup> 〈표 1〉은 舊春浦면의 행정구역을 개황한 것이다.

舊春浦面지역은 행정구역상 德實里, 龍淵里, 仁壽里, 三浦里, 雙亭里와 뒤에 편입된 大場村里 등 5~6개 리이다. 〈표 1〉에는 과거 춘포면의 면소재지였던 인수리와 1921년 이후 면소재지가 된 대장촌리 등 면의 新興 중심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일대는 인수리와 쌍정리 등 전통 集姓村지역과 대장촌리, 삼포리 등 新興 開墾村落으로 이분된다. 인수리는 舊面사무소 소재지로서 경지와 인구수에서도 대장촌리와 함께 가장 큰 지역이었다. 쌍정리와 함께 전통 集姓촌이 존재한 유서깊은 마을이다. 반면, 대장촌리와 삼포리는 新興 개간촌락으로서 마을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다.<sup>10)</sup> 특히, 대장촌리는 지명 자체가 일본식으로 당시 일본인의 활발한 來住를 말해 주고 있다.<sup>11)</sup> 이 지역은 軍내 대표적인 미곡생산지·집산지로서 대장촌역을 중심으로 상설점포 및 시가지가 조성되면서 급속히 성장하였다. 대장촌역은 저명한 細川農場 미곡창고 앞에 설치되었다.

춘포면은 일본인의 거주가 비교적 활발한 지역으로서 일찍부터 대규모 농장

9) 「益山郡春浦面面勢一斑」, 木原壽 編(1928).

10) 南宮燧(1990) 참조.

11) 이상 조재섭·채수환(2000) 참조.

경영이 성업하였다. 춘포면은 군내에서도 50町步 이상 대지주가 9명으로 가장 많은 지역이었다(1928년 1월 현재). 단, 동척 이민은 상대적으로 저위에 그치고 있다. 춘포면 내 농장소재지를 두고 있는 농장의 소유면적을 보면, 세천농장(대장촌) 1,396정보(답 1,183정보), 금촌농장(대장촌) 230정보(답 174정보), 전판농장(용연리) 116정보(답 75정보)이다(이 점 후술).

## 2. 전익수리조합의 창설

전익수리조합은 춘포면 내 일본인들의 활발한 진출을 배경으로 1910년에 창설되었다. 대단히 이른 시기에 창설된 근대 수리조직이다. 전주군 삼례면과 익산군 춘포면 일대를 조합의 물리구역으로 하고 있으며,<sup>12)</sup> 이 때문에 조합의 이름도 전주의 ‘전’과 익산의 ‘익’을 따서 전익수리조합이라 칭하였다.

춘포면 내에는 독주항보, 용포보, 갈전제, 흑석제, 주교제 등의 재래 수리시설이 다수 존재하였다. 전익수리조합은 구한말 민영익 소유의 독주항보를 매입하여 일부 일본인을 중심으로 조합창설이 급속하게 이루어졌다.<sup>13)</sup> 조합장은 細川農場의 일본인 主任이 맡았고, 조합사무소는 세천농장 사무소를 겸용하였다.

전익수리조합은 한국 근대 농업수리발달사에서 초기 수리조합의 역사를 잘 보여 주고 있다. <표 2>는 1930년까지 설립된 益山郡 및 沃溝郡(군산 포함) 내 수리조합의 개요를 살펴본 것이다. 이 지역은 조선 수리조합사에서 조합의 설립연대도 빠르고 조합면적도 넓어 근대 수리조합의 효시를 이루고 있다.

전익수조의 경우 옥구서부수조와 함께 재래 洑를 改修해 조합의 용수원으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공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비 총액(단보당 공사비)은 현저히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반면 임익수조와 인근 군소 수조를 합병한 익옥수조, 그리고 왕궁수조는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조합의 주요 용수원으로 대규모 저수지를 신설했기 때문이다. 전익수조의 공사비 저위성은 향후 조합 농민에 부과하는 조합비를 낮추는 호조건을 제공하였다. 전익수조구

12) 全益水利組合 蒙利區域

舊郡面	全州郡 紆西面	益山郡 春浦面	益山郡 東一面
舊洞里	后上里 后亭里 海田里 於田里 文宗里	沙川里 長淵里 板門里 新湖里 回化里 德實里 柴田里 佛堂里	大場村 新月里 新坪里 九潭里 澗里 九伏里

자료: 『全益水利組合重要書類綴』.

13) 全益水利組合, 『全益水利組合重要書類綴』(연대미상); 全北農地改良組合(1978).

〈표 2〉 1930년 익산군 및 옥구군 내 수리조합 일람  
(단위: 町, 圓, 石)

組合名	設立年月	組合區域	蒙利面積	段步當 工事費	段步當 收穫量	
					設立當時	現在(1930)
沃溝西部	1908. 12	沃溝郡 沃溝面 外 1面	490	1.95	1.73	3.32
臨益	1909. 2	沃溝郡 臨陂面 外 1面	3,343	53.23	0.74	3.08
全益	1910. 11	益山郡 春浦面 外 1面	1,445	1.28	1.56	3.24
益沃	1920. 2	益山郡 內 2面 沃溝郡 內 6面	10,108	47.61	1.33	3.26
王宮	1930. 3	益山郡 王宮面	373	60.02	1.54	3.45

자료: 朝鮮總督府 土地改良部 編(1932), pp. 14~15, 67.

역에서는 수리사업을 전후해 수확량이 2배 이상 급증했기 때문에 조합비 절감 효과는 표에서 제시한 것보다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표 3〉은 전익수조 지구 내 수리사업을 전후한 증산실적 및 조합비 부담의 실태를 시계열화한 것이다. 전익수조는 1941년 全北水利組合에 합병되었기 때문에 제시된 통계치는 1940년까지이다.

지구 내 공사 전후의 수확량을 비교하면 1929년부터 20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수리사업에 의한 성과만은 아니고 품종개량, 금비증투가 결합된 결과이다. 대체로 토지개량과 농사개량사업이 이 지역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잘 결합하여 고수확기조를 확립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4)</sup>

전익수조의 단보당 조합비는 40~50錢 내외로서 전국 최저수준이었다. 조합비는 증산실적이 높아지고 또 추가개량공사(경지정리사업)로 인해 1940년 1원대로 상승하고 있지만, 그리 높은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다. 조합비의 저위성에 따라 조합 농민이 부담하는 ‘조합비실질부담률’도 5%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소화공황기(1930~1934)의 곡가폭락에 따라 조합비부담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sup>15)</sup> 이마저도 1932년부터는 5% 미만으로 하락하고 있다. 곡가하락

14) 단, 〈표 3〉에서는 ‘공사 전 수확량’이 과소계상되어 ‘단보당 증수량’이 과대계상되는 통계상의 오류가 있다. 1910~1912년간 익산군의 단보당 미생산량은 1.13석이었다(전라도 전체 평균단보당 1.04석). 鄭勝振(2003), p. 25.

15) 1930~1933년간의 곡가폭락은 세계대공황의 여파가 일본의 오사카 미곡시장을 통해 군산의 미곡시장에 미친 결과이다. 이같은 미가폭락은 1934년부터 회복하여 1935년에야 대공황 전의 미가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표 3〉 전익수리조합 지구 내 증산실적 및 조합비 부담의 실태

(단위: 石, 圓, %)

年度別	工事前 收穫量 (a)	工事後 收穫量 (b)	段步當 增收量 (c=b-a)	1石當 穀價 (d)	段步當 增收額 (e=c×d)	地主 負擔力 (f=e×0.5)	段步當 組合費 (g)	組合費實 質負擔率 (h=g/f)
1927	1.56	2.88	1.32	13.00	17.16	8.58	0.40	4.7
1928	1.56	2.86	1.30	12.50	16.25	8.12	0.40	4.9
1929	1.56	3.81	2.25	12.00	27.00	13.50	0.40	3.0
1930	1.56	3.24	1.68	5.25	8.82	4.41	0.40	9.1
1931	1.56	2.87	1.31	8.82	11.55	5.78	0.40	6.9
1932	1.60	4.25	2.65	7.92	20.99	10.49	0.40	3.8
1933	1.60	4.01	2.41	9.10	21.93	10.97	0.45	4.1
1934	1.60	4.23	2.63	11.56	30.40	15.20	0.50	3.3
1935	1.61	4.43	2.82	12.41	35.00	17.50	0.50	2.9
1936	1.61	4.05	2.44	12.24	29.87	14.93	0.50	3.3
1937	1.60	4.00	2.40	11.05	26.52	13.26	0.50	3.8
1938	1.60	4.07	2.47	13.26	32.75	16.38	0.71	4.3
1939	1.60	2.39	0.79	17.51	13.83	6.92	0.67	9.7
1940	1.60	3.79	2.19	17.51	38.33	19.17	1.41	7.3

주: 地主負擔力은 당시의 소작관행을 고려하여 수확량의 50%로 간주함.

자료: 『朝鮮土地改良事業要覽』, 各年版, 「水利組合實績ニ依ル收支概算表」.

을 상쇄하는 수확량 증가가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16)</sup>

전익수조에서 조합비 실질부담률의 저위성은 재무구조상 당해 조합이 ‘우량 조합’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산미증식계획기(1920~1934) 대규모 저수지형 수리조합과는 다른 초기 汎型 수리조합의 최대 특징이다. 여기에서는 재래 보를 개수해 조합의 용수원으로 이용한 결과,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농업생산을 제고하는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일부 일인 지주가 주도한 수리조합의 창설은 기존의 수리질서에 적지 않은 혼란을 주고 있었다.<sup>17)</sup>

### 3. 만경강 개수공사의 전개

전북 高山지역에서 발원하여 高山川이라 부르는 만경강의 상류는 완주(구 전

16) 전익수조의 조합비수준은 기존에 알려진 ‘우량조합’인 서천수리조합보다도 더 낮다. 서천수조의 경우 조합비는 단보당 5圓 내외, 조합비 실질부담률은 50%대이다. 鄭勝振(1997) 참조.

17) 만경강 유역 수리질서의 개편에 대해서는 松本武祝(2003) 참조.

주 북부지역)를 경유하여 전주와 익산 접점에서 하천의 본류를 형성하고 김제와 익산·옥구의 兩岸을 거쳐 황해로 나가는 호남의 대하천 가운데 하나이다. 만경강의 상류인 고산천은 삼례 부근에서 하천 南岸에서 所陽川 및 全州川과 합류하고, 北岸에서는 익산군을 南流하는 益山川과 합류한다. 하천의 유역면적은 한강, 낙동강, 금강 등 대하천에 이르지 못하나 ‘만경뜰’이라는 거대한 도작지대를 관류하고 있어 일찍부터 총독부의 주요 관심지역 가운데 한 곳이었다.

총독부는 1914년 河川取締規則을 제정하여 15개의 대하천을 총독부의 直轄河川으로 지정하고, 1915년부터 朝鮮河川調査事業을 개시하였다(14개년 계획). 1916년부터는 萬頃江, 榮山江, 城川江, 載寧江, 龍興江 등 5대 河川에 대한 실측조사를 완료하고, 1920년부터 조사비를 증액하여 1925년까지 여타 대하천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sup>18)</sup>

총독부 직할하천에 대한 河川改修工事は 19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1925년 총독부는 직할하천에 대한 개수공사에 대해 11개년간 繼續事業으로 결정하고, 産米増殖更新計劃(1926~1934)과 때를 맞추어 1926년부터 본격적인 하천개수사업에 착수하였다. 이듬해인 1927년에는 朝鮮河川습이 공포되어 하천개수공사를 법적으로 지지하였다.<sup>19)</sup> 1929년에는 만경강 하류부와 支川인 益山川, 載寧江 지류인 沙里院川 개수공사를 위해 500만 원을 증액하고, 1925년부터 1936년에 걸쳐 12개년으로 工期를 연장하였다.<sup>20)</sup>

만경강개수공사는 사업 1년 전인 1925년부터 재령강 개수공사와 함께 가장 먼저 시행되었다. 공사는 1924년 大旱魃을 계기로 1925년부터 全州川 局部改修工事を 시작으로 만경강 중류 일대의 공사에 착수했다. 초기의 만경강 개수계획은 1925년부터 1930년까지 6개년간의 繼續事業으로 공사비 총액은 570만 원이었다. 그런데 1929년부터는 만경강 하류부와 支川인 益山川 개수공사를 위해 공사비를 증액하고 총공사비 964만 원으로 준공기간을 5개년간 연장하였다. <표 4>는 만경강 개수사업의 공사비 내역을 살펴본 것이다.

예산액과 예산잔액을 합한 만경강 개수공사의 총사업비는 925만 9,668원인데, 이 가운데 1935년까지의 예산액이 783만 8,810원이다(85%). 예산액 780만여 원 가운데 본공사비가 53.4%, 토지매수비가 17.3%, 부대공사비가 14.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토지매수(보상)비의 상대적 저위는 향후 ‘하천공사 반대운동’의

18) 朝鮮總督府 土木部 編(1923).

19) 廣瀨貞三(1999).

20) 朝鮮總督府 內務局.

〈표 4〉 1925~1935년 만경강 개수공사비의 내역

(단위: 圓, 石)

費目	土地買收費	本工事費	器械費	附帶工事費	雜費	合計
豫算額 (구성비)	1,358,626 (17.3)	4,182,242 (53.4)	613,864 (7.8)	1,144,561 (14.6)	539,517 (6.9)	7,838,810 (100.0)
竣工額 (진척률)	1,271,299 (93.6)	3,051,009 (73.0)	542,970 (88.5)	1,061,888 (92.8)	474,985 (88.0)	6,402,033 (81.7)
豫算殘額	87,326	1,121,194	66,299	84,062	61,974	1,420,858

- 주: 1) 토지매수비에는 補償費 포함.  
 2) 본공사비에는 굴착공사비, 축제공사비, 護岸水制工事費, 특수공사비 포함.  
 3) 기계비에는 기구·기계수선비 포함.  
 4) 부대공사비에는 水門工事費, 橋梁工事費 등 포함.  
 5) 잡비에는 급료수당 및 여비, 營繕費, 測量其他調査費, 雜工事費, 其他諸費 등 포함.  
 6) 합계에는 (직원) 봉급 및 사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를 포함한 준공 총액은 706만 2,444원임.

자료: 朝鮮總督府 內務局 編, 「萬頃江改修工事年報附表」, 『朝鮮直轄河川工事年報』(昭和10年度), pp. 2~3.

주요 요인이 되었다. 준공액으로 보는 한 ‘본공사(비)’의 진척률은 73%에 불과해 개수공사는 당초 계획인 1935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표 5〉를 통해 공사의 시행과정을 살펴보자. 전술한 바와 같이, ‘본공사’는 1926년부터 시작되었다. 1935년까지 실제 시공된 총건수는 178건으로서 계획시공건수 190건의 94%에 달하고 있다. 시공건수의 추이를 보면, 1930년부터 급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1929년 기존의 하천 중류부 공사에 하류 개수공사와 益山川 개수공사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1년까지 본공사는 굴착·축제·호안공사 등 河身整備事業이 공사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만경강이 심한 蛇行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sup>21)</sup> 본공사에서는 하신정비사업을 통해 기존의 하천을 直流化하고 또 一流化함으로써 河身을 정비하는 데 주력하였다.<sup>22)</sup> 또한 1932년부터는 수문, 기타 공사를 통해 배수를 원활히 함으로써 중류 이하의 범람을 방지하는데 공사의 역점을 두었다.

특히 만경강 개수공사는 유역 가운데 홍수의 피해가 가장 큰 전주군 삼례면 飛飛亭 이하 익산군 내 大場村(춘포면), 木川浦(이리읍)를 경유해 童子浦(五山面)에 이르는 延長 16km 구간, 동자포부터 하류 東之山 부근에 이르는 8km 구

21) 高在昱(1986) 참조.

22) 이같은 사실은 榮山江改修工事에서도 확인된다. 鄭勝振(2003) 참조.

〈표 5〉 만경강 개수공사의 시공경과 일람

種別	本工事					附帶工事	雜工事	計
	掘鑿	築堤	護岸	水門	其他			
施工件數	11	24	22	31	11	29	62	190
1925	0	0	0	0	0	0	4	4
1926	0	0	2	0	0	0	11	13
1927	0	3	1	0	1	1	7	13
1928	0	2	1	2	1	3	0	9
1929	3	4	3	2	0	1	0	13
1930	0	4	2	3	4	0	6	19
1931	2	3	1	2	0	4	2	14
1932	0	2	1	9	2	9	3	26
1933	0	1	3	2	0	1	8	15
1934	1	1	2	4	0	4	13	25
1935	3	1	4	4	2	6	7	27
計	9	21	20	28	10	29	61	178
未竣工	2	3	2	3	1	0	1	12

주: 부대공사에는 道路工事, 橋梁, 鐵橋工事 등 포함.

자료: 朝鮮總督府 內務局 編, 『朝鮮直轄河川工事年報』(昭和10年度), pp. 14~16.

간, 益山川 新川敷의 굴착 등 홍수방어를 위한 배수공사에 공사의 초점을 두고 있었다. 1931년부터는 內務局 직할하에 裡里 土木出張所를 별도로 설치함으로써 공사에 만전을 기하였다.

만경강의 지류 가운데 익산천은 종래 춘포면 부근의 평야부에서 散亂하여 蜿蜒한 河道를 갖지 않아 범람의 피해가 막심하였다. 동천은 춘포면 川東里 부근부터 春浦山의 동쪽을 貫流하여 大場村里 부근에서 분류와 합류하는데, 益山川 局部改修工事에서는 춘포면 立石里(雙亭리에 편입) 부근 이하 仁壽里를 경유해 板門(龍淵里)에 이르는 사이에 新川敷를 정하고 防水堤를 축조해 만경강 분류와 합류시키도록 하였다.<sup>23)</sup>

수리조합지구의 경우 하천배수 및 방수공사는 통상 수리조합에서 시행하였지만, 여기서는 익산천이 만경강 개수공사의 일환으로 시행됨으로써 전익수리조합의 추가개량공사비(방·배수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주고 있었다.<sup>24)</sup> 이것은 지

23) 『萬頃江改修工事』 1931년판, 『朝鮮直轄河川工事年報』.

24) 1939년까지 전익수리조합에서는 ‘추가개량공사’가 시행된 바가 없다. 다음의 공사비 내역 참조.

역농민들에게 당해 공사비만큼 조합비를 절감하는 호조건을 제공하였다. 전익수리조합의 조합비가 예외적일 정도로 낮은 이유 가운데 하나도 여기에 있다.

### Ⅲ. 경지상태의 변동

구춘포면은 대장촌리를 제외한 5개 리로 구성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17년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대장촌리가 신춘포면으로 편입되었다. 대장촌리는 지리적으로 구춘포면에 가까운 이 지역의 신흥 중심지였다. 익산군 내 구춘포면 토지대장의 개요를 살펴본 것이 <표 6>과 <표 7>이다.

면내 용연리와 덕실리는 토지대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1940년 전익수조 지구 내 경지정리사업시 당해 대장을 閉鎖하면서 망실되었다고 추정된다. 표에서는 대장촌리의 일부 필지도 같은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舊臺帳 및 閉鎖臺帳이 남아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인수리와 대장촌리는 지역의 新舊 중심지로서 경지면적이 상대적으로 넓다. 대장촌리가 합방을 전후해 일본인이 개발한 신흥 촌락이라면, 인수리와 쌍정리

<표 6> 익산군 舊춘포면의 지역별 개황(1914년 현재)

洞里別	總地番數	分析筆地數	面積(1914年)	左同(%)
大場村里	867	643	219.1町	28.3
三浦里	369	368	192.4町	24.9
雙亭里	603	601	128.2町	16.6
仁壽里	918	917	233.3町	30.2
龍淵里	?	0	0	0.0
德實里	?	0	0	0.0
4개 리 計	2,757	2,529(91.7%)	773.0町	100.0

전익수리조합 공사비 내역(누계)

(단위: 圓)

연도	설치 공사비	확장 공사비	추가개량 공사비	재해복구 공사비	開畓 공사비	경지정리 공사비	계
1939	18,500	14,188					32,688
1940	18,500	14,188	14,070			387,300	434,058

자료: 『朝鮮土地改良事業要覽』, 1939·40년판.

는 호남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통적 집성촌이다. 반면, 삼포리는 사방이 경지로만 이루어진 ‘개간촌락’이다.

춘포면 토지대장의 시기별 개황을 제시한 <표 7>을 보면, 분석대상 4개 리의 면적이 1914년 토지조사 査定 당시 773町步에서 1945년 801정보로 약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지의 증가상황으로 보아 개간을 말하기에는 저조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1910년 전익수리조합사업이 완료되어 1914년 토지대장상에는 개간상황이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면적증가의 정체에 비해 필지분할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지수의 증가상황으로 보는 한, 필지분할은 시기적으로 1930년을 전후한 시기에 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만경강 개수공사의 자연스러운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감소하고 있었는데, 특히 1930년대 전반 농업공황 전후로 그러한 경향이 현저하다. 지주적 토지소유(지주면적)를 보면 65% 전후에서 정체적인 상황이다.

<표 7> 익산군 舊춘포면 토지대장의 시기별 개황

年度別	筆地數	面積(町)	所有者數	地主數 (10町 以上)	地主面積(%)
1914	2,529	773.0	543	12	507.0(65.6)
1920	2,569	784.5	539	14	509.2(64.9)
1925	2,719	785.2	543	15	527.8(67.2)
1930	2,991	786.1	507	15	535.9(68.2)
1935	3,113	786.9	474	13	530.7(67.4)
1940	3,279	800.6	489	12	533.3(66.6)
1945	3,290	801.8	510	11	528.2(65.9)

<표 8> 1927년 익산군 및 춘포면의 전답구성과 경영면적 현황

(단위: 町步, %)

	畓	田	計	1戶當 耕作面積	自作		小作	
					畓	田	畓	田
春浦面	2,208.3 (83.1)	447.4 (16.9)	2,655.7 (100.0)	0.17	201.5 (9.1)	115.7	2,006.8 (90.9)	331.7
益山郡	22,566.3 (80.6)	5,439.8 (19.4)	28,006.1 (100.0)	0.13	3,387.4 (15.0)	2,111.1	19,178.9 (85.0)	3,328.7

자료: 木原壽 編(1928), pp. 36~37.

〈표 8〉은 춘포면과 익산군의 지목구성 및 경작형태를 살펴본 것이다. 1927년 말 현재 춘포면의 지목구성비는 답 83%로 군 전체 80%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농가 1호당 경작면적도 춘포면이 1.7段步로 군 전체(1.3단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경영형태를 보면, 소작지율은 춘포면이 2,338.5정보(88%)로서 익산군의 80% (22,507.6정보)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춘포면은 익산군 내에서도 지주제가 상대적으로 발달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소작은 주로 답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작지는 전에서 적지 않게 발견된다.

춘포면과 그것을 포함한 익산군은 稻作을 중심으로 한 소작제가 상대적으로 발달한 지역이다. 〈표 9〉는 토지조사 사정 이후 춘포면 4개리 답의 평균地位를 제시한 것이다. 평균지위는 기준수확량에 의거해 표준 課稅地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다.

춘포면 대부분의 답은 17~15등급(41.4%), 14~12등급(37.8%)에 위치해 있다. 단보당 수확량으로 보면 전자는 1.2~2.1石, 후자는 2.1~3.0石에 달하고 있어, 당시 전라도 평균 1.04石(1910~1912년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술한 수리사업과 치수사업의 결과였다고 생각된다.

이제 춘포면의 동리별 지목구성과 그것의 시기별 변동상황을 살펴본 것이 〈표 10〉과 〈표 11〉이다. 1914년 현재 경지의 지목구성을 보면 답 76.1%, 전 12.0%, 그리고 농업기반시설로서 구거·하천은 2.1% 수준이다. 후자는 대장촌리와 인수리에 집중되어 있다. 동리별 특징을 보면, 대장촌리와 인수리에는 경지만큼이나 대지 구성비도 높아 集落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신흥 개간촌락인 대장촌리와 삼포리는 경지만큼이나 잡종지의 구성비도 높았다.

〈표 11〉을 통해 시기별 지목변동 추이를 보면, 전답구성비가 비교적 고정된 가운데 잡종지의 감소, 구거·하천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후자의 사실은 춘포면에서 전개된 치수·수리사업의 성과인데, 전술한 〈표 7〉에서 필지분할(필지수

〈표 9〉 1914년 畝의 등급구성

地位等級	19~18	17~15	14~12	11~9	8~5	計
反當收量(石)	0.6~1.2	1.2~2.1	2.1~3.0	3.0~3.9	3.9~5.1	
筆地數	195	467	313	83	51	1,109
面積(町步)	64.7	243.5	222.4	38.3	19.1	588.0
(%)	(11.0)	(41.4)	(37.8)	(6.5)	(3.3)	(100.0)

<표 10> 춘포면 내 동리별 지목상황(1914)

洞里別		畓	田	垡	雜種地	溝渠河川	其他	計
大場村里	筆地數	282	135	149	55	20	2	643
	面積(町)	167.4	19.4	8.6	20.1	3.4	0.2	219.1
三浦里	筆地數	263	44	24	37			368
	面積(町)	173.1	2.9	1.0	15.3			192.4
雙亭里	筆地數	219	247	114	11		10	601
	面積(町)	85.4	29.6	4.4	6.3		2.5	128.2
仁壽里	筆地數	345	375	163	31	1	2	917
	面積(町)	162.1	40.9	5.4	11.6	13.1	0.3	233.3
計	筆地數	1,109	801	450	134	21	14	2,529
	面積(町)	588.0 (76.1)	92.8 (12.0)	19.4 (2.5)	53.3 (6.9)	16.5 (2.1)	3.0 (0.4)	773.0 (100.0)

<표 11> 시기별 지목변동 추이(1914~1945)

時期別		畓	田	垡	雜種地	溝渠河川	其他	計
1914	筆地數	1,109	801	450	134	21	14	2,529
	面積(町)	588.0 (76.1)	92.8 (12.0)	19.4 (2.5)	53.3 (6.9)	16.5 (2.1)	3.0 (0.4)	773.0 (100.0)
1930	筆地數	1,307	805	507	47	310	15	2,991
	面積(町) (%)	600.8 (76.4)	100.3 (12.7)	22.0 (2.8)	14.7 (1.9)	45.4 (5.8)	2.9 (0.4)	786.1 (100.0)
1945	筆地數	1,394	660	567	26	627	16	3,290
	面積(町) (%)	605.5 (75.5)	85.5 (10.7)	25.4 (3.2)	4.1 (0.5)	78.4 (9.8)	2.9 (0.3)	801.8 (100.0)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한편, 1930~1945년간에는 전의 감소, 대지의 증가가 엿보여 당시 농촌인구의 증가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주로 대장촌의 개발에 기인한다.

그런데 잡종지가 감소하고 구거·하천이 증가하는 지목변동의 이면에는 내부적으로 보다 복잡한 변동상황을 내포하고 있다. <표 12>를 통해 시기별 지목변동의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확인된다. 첫째, 1914~1930년 간 총 543필지에서 지목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답 이외의 지목이 전답으로



〈표 12〉 춘포면 내 지목변동의 유형

地目別	變動內譯	1914~1930		1930~1945	
		筆地數	小計	筆地數	小計
畓 (類型 I)	田→畓	68		101	
	雜種地→畓	48	122	14	137
	其他	6		22	
田 (類型 II)	雜種地→田	46		6	
	垜→田	11	60	9	21
	其他	3		6	
垜 (類型 III)	田→垜	56	69	60	78
	其他	13		18	
溝渠 河川 池沼 (類型 IV)	畓→河川	42		135	
	畓→溝渠	20		75	
	田→河川	32	121	72	312
	田→溝渠	11		8	
	垜→河川	12		11	
	其他	4		11	
道路 鐵路 (類型 V)	畓→道路	66		14	
	畓→鐵路	36		5	
	田→道路	33	158	1	24
	垜→道路	21		4	
	其他	2			
其他	其他	13		5	
計		543		577	

변경된 경우(類型 I+類型 II)가 180여 건에 이르고 있다. 이후 1930~1945년간 그 수치는 150여 건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다. 대체로 1914년 현재 총필지수가 2,529필지였음을 감안한다면 적지 않은 지목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전 경지의 13.4%). 둘째, 1914~1930년간 가장 큰 지목변동은 전·답 등 경지의 도로·철도 등으로의 전환(類型 V, 158건)이다. 이 시기에는 대장촌의 개발 붐을 타고 철도, 도로공사 등이 전개되었던 모양이다. 대장촌의 개발은 대지의 증가(類型 III)에서도 엿보인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에 유형 V의 변동은 급속도로 감소하였다. 셋째, 경지의 구거·하천으로의 변경(類型 IV)이 1914~1930년간 121건, 1930~1945년간 무려 312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익산천의 개수공사가 1930년대 초에 진행되었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1930~1945년간 지목

〈표 13〉 동리별 開墾(作畚)의 추이

時期別	大場村里	三浦里	雙亭里	仁壽里	計
1914~1920			11	17	28
1921~1925				1	1
1926~1930		1	1	4	6
1931~1935					
1936~1940	1	14	7	15	37
1941~1945			6	2	8
計	1	15	25	39	80

주: ‘開墾竣工’에는 ‘土地調査’에 따른 신규등록분이 포함되어 있음(‘개간준공’은 38필지, 4만 2,116坪, ‘토지조사’는 42필지, 3만 7,966坪). 개간 이후 지목은 대부분 밭임.

변동의 수치를 이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전답이 농업기반시설로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수용된 전답은 전술한 새롭게 개간된 전답이 아니라 구래의 天水畚이었다. 이상의 첫 번째 사실과 세 번째 사실을 종합한다면, [전답 이외 잡종지⇒개간 전답, 구래의 천수답⇒구거, 하천, 도로, 철로 등]으로 전환됨으로써 전체적으로 1914~1945년간의 전답구성비는 일정한 채 잡종지가 감소하면서 구거·하천 등이 증가하고 있는 메커니즘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구거나 하천 등의 농업기반시설과 도로·철로 등 사회간접자본이 농촌사회에 공급되는 농업근대화, 농촌근대화의 한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춘포면의 개간상황은 저조하였다. 전익수리조합 사업이 1910년에 완료되었음을 감안한다면, 개간은 오히려 1914년 토지조사 사정시점에서 이미 종료되고 있었다고 봄이 정확할 것이다. 치수 수리사업의 목적은 개간이 아니라 기존의 천수답을 수리안전답으로 전환하는 것, 즉 경지의 질적 상태를 제고하는 것에 있었다. 〈표 13〉을 통해 이 시기의 개간실태를 살펴보자.

〈표 13〉은 춘포면 토지대장에서 ‘開墾竣工’에 의한 것만을 적출한 것이다. 동리별 특징을 살펴보면, 신흥 개간촌락인 대장촌리 및 삼포리가 전통촌락인 인수리와 쌍정리보다 개간이 오히려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술하게 될 이 시기의 활발한 필지분할 상황을 고려한다면, 20세기 전반의 식민지기는 경지의 양적 확대를 꾀하는 시점을 넘어 경지의 질적 상태를 제고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부진한 개간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춘포면에서는 활발한 필지분할이 진

〈표 14〉 춘포면 내 동리별·시기별 筆地分割의 추이

時期別	大場村里	三浦里	雙亭里	仁壽里	計
총필지수(1914)	643	368	601	917	2,529
1915~1920	5	3	15	18	41(5.4)
1921~1925	13		93	42	148(19.4)
1926~1930	138	2	52	84	276(36.3)
1931~1935	83	2	3	33	121(15.9)
1936~1940	12	106	21	26	165(21.7)
1941~1945	2		7	1	10(1.3)
計	253	113	191	204	761(100.0)
총필지수(1945)	896	481	792	1,121	3,290

행되고 있었다. 토지대장상에서 필지분할은 ‘속지번’의 생성에 의해 나타난다. 가령, 23번지에서 23-1번지, 23-2번지, 23-3번지 등이 그것이다. 〈표 14〉는 춘포면의 동리별 필지분할상황을 1914~1945년간 시계열화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춘포면의 분석대상 총필지수는 1914년 2,529필지에서 1945년 3,290필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표 하단의 합계를 보면, 1914~1945년간 2,529필지에서 761필지가 새롭게 분할되고 있다. 증가율로 본다면 31년간 30%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먼저, 시기적으로 보면 1926~1930년간 276건(36.3%)으로서 가장 활발한 필지분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요인은 만경강 개수공사(익산천 개수공사 포함)와 이 시기에 진행된 도로 및 철로 修築사업에 기인한 것이다. 시기적으로 전자는 1926~1930년간에, 후자는 1936~1940년간에 시행되었다.

지역별 필지분할상황에 주목하면, 면의 신·구 중심지인 대장촌리와 인수리가 상대적으로 높다. 인수리와 쌍정리는 주로 익산천변의 토지에서 필지분할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대장촌리의 필지분할은 1926~1930년간에 집중되어 여타 동리와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시기 대장촌리에서는 익산천 개수공사 및 익산천과 만경강을 합류시키는 공사, 각종 도로·철로공사 등이 시행되었다. 대장촌리의 필지분할 자체가 대장촌의 개발 붐의 한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지로만 구성된 신흥 촌락인 삼포리에서는 1936~1940년간 이 가장 많았다. 이제 〈표 15〉를 통해 분필지의 지목을 살펴보기로 하자.

분필지의 지목을 보면, 답 44.5%, 구거·하천·도로·철로 26.5% 순이다. 전

〈표 15〉 분필지의 지목구성

地目別	大場村里	三浦里	雙亭里	仁壽里	計
畚	131	57	66	85	339(44.5)
田	17	3	58	60	138(18.1)
塚	28	2	22	7	59(7.8)
林野雜種地	1		2	17	20(2.6)
溝渠河川	74	51	42	35	202(26.5)
其他	2		1		3(0.4)
計	253	113	191	204	761(100.0)

술한 〈표 12〉의 지목변동에서 구거·하천 대 도로·철로의 필지구성비는 약 5:2의 비율이었다. 결국 용수로와 도로 등은 5:2의 비율로 당해 필지를 잘게 분할하고, 담과 전은 그 분할대상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필지분할은 물리적으로 당해 필지가 보다 세분화되는 과정이다. 가령, 구거 [또랑]는 새롭게 전답을 관류함에 따라 당해 경지를 최소한 2개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다. 이 경우 신설 용수로는 당해 耕圃를 더욱 잘게 분쇄하면서 경지의 이용을 극대화할 것이다. 도로의 개통도 마찬가지 효과이다. 농민의 入出을 빈번히 함으로써 경지의 보다 집약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요컨대, 수리·치수사업에 의해 촉발된 경지의 분할은 향후 춘포면에 있어서 보다 집약적 농업을 위한 호조건을 제공하였다.

#### IV. 식민지주제의 추이(1914~1945)

식민지주제는 식민지라는 사회·정치적 상황하에서 일본인의 활발한 진출, 특히 일본인 대지주에 의한 토지의 집중현상을 최대의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원리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권력관계에 의해 견인되는 경제적 집중현상이다.<sup>25)</sup> 지주층은 이를 기반으로 소작제 농장을 운영하고 많은 조선인 농민들을 소작농민으로 부리고 있었다.

〈표 16〉은 춘포면과 익산군의 토지소유실태를 개황한 것이다. 1928년 현재 익산군 현황을 보면, 1정보 미만의 영세 토지소유자는 1만 6,412명으로 전체 소

25) 淺田喬二(1989) 참조.

〈표 16〉 1928년 익산군 및 춘포면의 토지소유 현황

規模別	~0.5町		0.5~1町		1~10町		10~50町		50町~		計	
	鮮人	日人	鮮人	日人	鮮人	日人	鮮人	日人	鮮人	日人	鮮人	日人
春浦面	1,075	33	98	16	131	49	18	12	4	5	1,326	115
益山郡	13,511	420	2,219	262	2,302	564	212	118	36	35	18,280	1,399

자료: 木原壽 編(1928), pp. 34~35.

〈표 17〉 1914년 동리별 소유자의 거주지 분포

(단위: 町, %)

洞里別	里內	里外面內	面外郡內	郡外	計
大場村里	54.8	4.4	0.6	158.3	218.1
三浦里	5.9	89.6	34.0	62.9	192.4
雙亭里	51.8	13.7	5.4	56.1	127
仁壽里	23.0	37.1	9.7	150.3	220.1
計	135.5 (17.5)	144.8 (18.7)	49.7 (6.4)	427.6 (55.3)	757.6 (100.0)

주: 국유지 5필지 15.3정보 제외.

유자 1만 9,679명의 83.4%를 점하고 있다. 반면, 10정보 이상 지주층 401명은 총소유자의 2.0%에 불과하다. 춘포면의 경우 전자는 84.8%, 후자는 2.7%대이다. 지주수로 볼 때 익산군이 18개 면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고려한다면 춘포면의 지주적 토지소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인의 토지소유는 조선인과 같은 영세자작농보다는 지주적 토지소유가 우세하였다.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인의 경우 1~10정보층은 오히려 1정보 미만층보다도 상대적으로 많다. 이것은 기존에 알려진 東拓 이민이 이 지역에서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일본인의 소유패턴은 영세 자작농보다 지주적 토지소유가 대세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이 점 후술).

〈표 17〉은 1914년 현재 춘포면 내 4개 리 토지소유자의 거주지별 분포를 살펴본 것이다. 표 하단의 분포를 보면, ‘군외’ 거주가 55.3%에 달하고, ‘리외면내’와 ‘리내’는 각각 18.7%, 17.5% 수준을 보이고 있다. 춘포면은 군산과 전주의 배후 농업지대로서 不在地主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가운데 ‘리외면내’의 고위성은 면의 신흥 중심지인 대장촌리의 개발 때문이라고

〈표 18〉 1914년 민족별 거주지별 소유분포

(단위: 町, %)

민족별		里內	里外面內	面外郡內	郡外	計
朝鮮人	筆地數	965	187	84	324	1,560
	面積	92.9	92.0	40.5	126.7	352.1
日本人	筆地數	170	124	8	550	852
	面積	41.6	52.8	4.2	272.1	370.7
其他	筆地數	12		25	75	112
	面積	1.0		5.0	28.8	34.8
計	筆地數	1,147	311	117	949	2,524
	面積	135.5 (17.5)	144.8 (18.7)	49.7 (6.4)	427.6 (55.3)	757.6 (100.0)

주: 국유지 5필지 15.3정보 제외.

생각된다. 반면, 이리읍(구익산면)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동리별 분포를 보면, 대장촌리는 ‘군외’ 거주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쌍정리와 인수리는 ‘리내’, ‘리외면내’ 등 재촌지주의 비중이 높다. 특히, 쌍정리는 ‘리내’ 비중이 40.8%, ‘리외면내’까지 합하면 51.6%에 이른다. 인수리의 경우 후자의 비중은 27.3%대이다. 쌍정리는 재촌지주가 강한 전통 집성촌의 소유패턴을 선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삼포리는 취락이 발달하지 않은 ‘경지마을’로서 인근 지역 거주자의 ‘리외면내’ 소유가 극단적으로 높다. 이제 1914~1930년간 거주지별 소유변동을 살펴본 것이 〈표 18〉과 〈표 19〉이다.

먼저, 표의 하단에 주목하면 1914~1930년간 국유지의 증가(15.3→59.8정보)에 따라 표본규모(sample size)가 757.6정보에서 726.2정보로 감소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18〉과 〈표 19〉의 하단을 보면, ‘리내’ 및 ‘리외면내’의 비중이 감소하는 만큼 ‘면외군내’ 및 ‘군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면외군내’의 증가는 두드러지고 있는데, 군내 이리읍의 개발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1914년 현재 민족별 분포를 보면, 조선인은 ‘리내’ 및 ‘리외군내’의 비중이 높은 반면, 일본인은 ‘군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런데 1930년에 들어서면 조선인의 소유면적이 352.1정보에서 241.5정보로 감소하는 가운데, ‘리외면내’의 비중이 급감하고 있다. 이 시기에 들어서면 일본인의 총소유면적도 감소하고 있다(370.7→330.3정보). 이러한 감소분은 모두 기타 소유지의 증가에 기인한

〈표 19〉 1930년 민족별 거주지별 소유분포

(단위: 町, %)

민족별		里內	里外面內	面外郡內	郡外	計
朝鮮人	筆地數	828	56	147	334	1,365
	面積	65.3	15.2	67.6	93.4	241.5
日本人	筆地數	193	134	36	617	980
	面積	31.2	24.8	10.3	264.0	330.3
其他	筆地數	14		195	199	408
	面積	1.1		71.4	81.9	154.4
計	筆地數	1,035	190	378	1,150	2,753
	面積	97.6 (13.4)	40.0 (5.5)	149.3 (20.6)	439.3 (60.5)	726.2 (100.0)

주: 국유지 238필지 59.8정보 제외.

〈표 20〉 雙亭里, 仁壽里 ‘里內’ 朝鮮人 土地所有者的 姓氏分布

1914	姓氏	金	李	朴	崔	鄭	白	張	河	其他	計
	雙亭里	18	12	8	16	4	4	5	1	24	92
	仁壽里	54	13	14	7	9	7	10	7	37	158
	計	72	25	22	23	13	11	15	8	61	250
1940	姓氏	金	李	朴	崔	鄭	池	張		其他	計
	雙亭里	11	11	8	21	5		3		25	84
	仁壽里	44	8	12	15	6	5	8		32	130
	計	55	19	20	36	11	5	11		57	214

것이다. 기타 소유자의 경우 ‘면외군내’ 및 ‘군외’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기타 소유지는 대부분 일본인 소유의 法人企業體이다. 대체로 식민지 전기의 지주제는 부재지주의 발전을 그 주류적 형태로 하고 있음이 춘포면 토지대장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인 토지소유자는 일본인에 비해 ‘리내’ 및 ‘리외군내’ 소유가 강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지만, 그마저도 1930년도에 들어서면 지주제의 발달에 따라 소유규모가 감소하고 있었다. 〈표 20〉은 전통 촌락이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던 쌍정리와 인수리의 성씨분포와 그 변동상황을 살펴본 것이다. 전술한 대로 ‘리내’ 소유자는 총 250명에서 214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1914년 현재 쌍정리의 경우 김(18명), 최(16명), 이(12명), 박(8명) 순으로, 인수리의 경우 김(54명), 박(14명), 이(13명), 장(10명) 순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1940년 단계에 들어서면, 쌍정리의 경우 최(21명), 김(11명), 이(11명), 박(8명) 순으로, 최씨가 리내 최대 성씨로 등장하고 있다. 인수리의 경우 김(44명), 최(15명), 박(12명), 이(8명) 순으로, 김씨가 리내 최대 성씨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씨 성이 리내 2위의 성씨로 부상하고 있음이 두드러진다.

쌍정리와 인수리 두 마을은 慶州 金氏, 全州 崔氏의 集成村이 발달해 있었다. 인수리는 문중, 궁월, 반도, 화평, 신화 등의 자연촌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주 김씨는 문중, 궁월, 반도마을에, 전주 최씨는 화평, 신화, 신평 등 이른바 봉개마을에 집성촌을 유지하고 있었다. 반면, 쌍정리는 원쌍정과 입석의 두 자연촌락이 합쳐진 행정리인데, 1930년대 화평, 신화의 전주 최씨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면서 전주 최씨 일색의 집성촌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전술한 <표 17>에서 쌍정리의 ‘리내’ 소유의 고위성은 마을의 풍경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쌍정리는 인수리와 달리 실질적인 토지소유를 동반하면서 식민지기 동안 집성촌이 보다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표 17>에서 인수리 ‘리내’ 소유의 저위성 상기). 이것은 인수리 마을 뒤의 춘포산이 춘포면의 공동묘지로 기능한 반면, 쌍정리 뒷산은 전주 최씨 종중 산으로 운영되었던 사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sup>26)</sup>

식민지주제는 식민지 전기간을 통해 발전적 경향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주제의 추이는 총독부의 農政기조나 1930년대 전반의 恐慌과 같은 외부 충격에 의해 일정한 부침을 보이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을 소유권 변동의 동향을 추적함으로써 살펴보기로 하자. <표 21>은 본격적인 소유분화 추이를 고찰하기에 앞서 개별 필지에서의 소유권 변동의 실태를 살펴본 것이다.

<표 21>은 소유권이 변동된 당해 필지의 면적을 합산해 동리별로 시계열화한 것이다. 여기서는 분석편의상 1915~1920년간, 1921~1925년간, 1926~1930년간, 1931~1935년간, 1936~1940년간, 1941~1944년간, 6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당해 기간의 누적치를 변동률로 산출하였다. 여기서는 1915~1944년간의 총변동을 100%로 간주한다.

분석기간 내의 변동률에 주목하면, 소유권 변동은 1921~1925년간 27%, 1915~1920년간 26%, 1926~1930년간 18% 순으로 기간별 평균치 16.7%를 상회하고 있다. 그런데 1930년대 이후 식민지 후기로 들어서면 소유권 변동률은 10%대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기존에 알려진 대로, 1930년대에는 昭和恐慌

26) 이상은 2002년 여름 인수리 봉개마을 노인정에서 실시한 집단 interview 결과임.



〈표 21〉 춘포면 내 전답의 소유권 변동 추이

(단위: 坪)

年度別	大場村里	三浦里	雙亭里	仁壽里	計
1915	11,916	9,485	27,826	2,042	51,269
1916	674	56,918	6,356	9,104	73,052
1917	2,040	97,539	7,378	10,184	117,141
1918	31,554	133,428	66,723	17,557	249,262
1919	30,820	36,582	24,878	1,437	93,717
1920	3,931	14,361	5,827	955	25,074
변동률	32%	34%	24%	16%	26%
1921	2,476	82,553	56,285	30,950	172,264
1922	36,871	20,489	11,976	21,756	91,092
1923	1,387	16,193	18,731	20,529	56,840
1924	41,171	80,264	11,466	10,947	143,848
1925	5,623	10,867	7,464	8,135	32,089
변동률	34%	21%	18%	35%	27%
1926	8,156	103,671	16,609	13,082	141,518
1927	5,399	19,923	22,533	11,097	58,952
1928	31,021	40,661	14,390	9,788	95,860
1929	7,509	16,840	10,033	5,544	39,926
1930	432	17,038	13,076	7,563	38,109
변동률	20%	19%	13%	18%	18%
1931	13,466	16,011	7,980	7,338	44,795
1932	3,539	16,049	11,271	3,482	34,341
1933	14	18,244	5,469	4,352	28,079
1934	124	5,282	26,577	5,831	37,814
1935	3,876	62,829	3,088	5,980	75,773
변동률	8%	12%	9%	10%	10%
1936	130	9,725	26,643	6,171	42,669
1937	1,140	79,783	33,730	3,496	118,149
1938	0	2,575	9,681	13,451	25,707
1939	4,235	2,513	16,975	6,770	30,493
1940	964	11,612	18,408	3,068	34,052
변동률	3%	11%	18%	13%	11%
1941	1,561	19,952	34,175	4,438	60,126
1942	0	5,414	54,806	9,403	69,623
1943	6,685	9,360	7,686	3,017	26,748
1944	0	459	8,475	2,973	11,907
변동률	3%	3%	18%	8%	8%

주: 1) 변동률은 분석기간 내 소유권 변동면적(坪)의 누계치 %임.

2) 6개 기간의 평균변동률은 16.7%임(1914~1944년간 소유권 총변동을 100%로 함).

(1930~1934)과 朝鮮小作令(1934) 등 각종 소작입법 등으로, 또 1940년대 전반에는 戰時經濟 등으로 소유권 변동은 완전히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감소폭은 1940년대 전반이 1930년대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7)</sup>

동리별 소유권 변동상황을 보면, 먼저 면의 신흥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던 대장촌리는 1915~1920년간(32%), 1921~1925년간(34%)의 변동률이 당해 기간의 평균치(전자 26%, 후자 27%)를 크게 상회하다가 1926~1930년간(20%) 둔화되고, 1930년대 이후가 되면 급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삼포리에 서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전통촌락인 쌍정리와 인수리에서는 소유권 변동률이 각 기간의 평균치를 밑도는, 따라서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크지 않은 평활한 추이를 볼 수 있다. 특히, 집성촌이 잘 발달된 쌍정리는 일반적 추이와는 달리 매우 고른 변동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단, 소화공황기는 예외).

이제 본격적으로 촌포면 내 소유분화 양상을 살펴본 것이 <표 22>이다. 계층별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10정보 이상층(50정보 이상층 포함)은 1920~1925년간 총면적 500정보대에서 520~530정보대로 증가할 뿐 1930년대 이후 거의 고정된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단, 지주층 내부에서는 소화공황기(1930~1935) 동안 50정보 이상 층의 증가, 10~50정보층의 감소가 나타난다.

1~10정보층이나 1정보 미만층에서도 두드러진 변동양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1~10정보층의 경우 1920~1925년간 10정보 이상층의 증가에 따라 190정보대에서 180정보대로 微減하고 있으나, 이러한 추이도 1935년 이후에는 다시 190정보대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1920~1925년간 소유면적이 감소하기는 1정보 미만층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1정보 미만층은 1930년대 이후 60정보대에서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채 고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의 촌포면 토지대장에서 나타나는 토지소유관계의 변동은 10정보 이상층의 변동에 따라 여타 계층의 다소간의 변동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체로 변동폭이 크지 않은 정체적인 소유분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계속해서 <표 23>을 통해 민족별 소유분화 상황을 살펴보자.

27) 충남 서천의 수리조합지구에서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1938년 이후 소유권 변동이 이전 시기의 반 이하로 급감하고 있다.

忠南 舒川水利組合 地區內 所有權 變動回數의 推移

期間	1913~1922年	1922~1931年	1931~1938年	1938~1945年	1913~1945年
回數	0.65	0.82	0.62	0.24	2.33
構成比	28.0%	35.2%	26.6%	10.2%	100.0%

자료: 정승진(1997)(원자료: 『舒川郡土地臺帳』).

〈표 22〉 1914~1945년간 춘포면 내 소유분화 추이

(단위: 町步)

면적별	1914년		1920년		1925년		1930년	
	인수	면적	인수	면적	인수	면적	인수	면적
50町 이상	3	301.81	2	225.25	2	224.51	2	228.34
10~50町	9	205.15	12	283.94	13	303.26	13	307.51
3~10町	18	96.41	22	118.46	24	108.56	23	114.24
1~3町	54	92.52	43	72.48	44	71.62	42	69.22
0.5~1町	51	36.01	65	47.43	56	40.84	49	34.05
0.5町 미만	408	41.06	395	36.96	404	36.39	378	32.69
계	543	772.96	539	784.52	543	785.18	507	786.05
면적별	1935년		1940년		1945년			
	인수	면적	인수	면적	인수	면적		
50町 이상	2	270.85	2	276.63	2	271.95		
10~50町	11	259.87	10	256.70	9	256.17		
3~10町	23	119.43	21	114.20	21	114.74		
1~3町	43	73.13	51	84.53	55	87.85		
0.5~1町	44	32.06	46	33.53	47	34.15		
0.5町 미만	351	31.52	359	35.00	376	37.02		
계	474	786.86	489	800.59	510	801.88		

자료: 『益山郡春浦面土地臺帳』.

민족별 소유분화 추이에서는 〈표 22〉와는 상이한 커다란 변동이 엿보인다. 먼저, 10정보 이상층을 보면, 1914~1930년간 조선인의 소유면적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기타 소유지가 급증하고 있음이 인상적이다. 같은 시기에 일본인의 경우도 조선인의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면적이 微減하고 있다. 이 감소분은 기타 소유지의 증가분으로 전환되었다. 후술하겠지만, 기타 소유지는 일부 국유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본인 소유의 법인기업체이다. 1930년대 이후에는 조선인 면적의 微減과 기타 면적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전 시기의 변동만큼은 아니었다.

1~10정보층의 경우를 보면, 1914~1930년간 10정보 이상 조선인의 급감과 대조되는 3~10정보층 조선인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1940년대에 들어서면 다시 1910년대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일본인의 경우(기타 포함) 우선 10정보 미만층은 소유면적에 있어 10정보 이상층에 비해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은 조선인 중소지주와 달리 1930년대에 일정한 부침

〈표 23〉 민족별 소유분화 추이

(단위: 町步)

규모별	1914년			1930년			1940년		
	조선인	일본인	기타	조선인	일본인	기타	조선인	일본인	기타
10町 이상	158.62 (4)	307.67 (6)	40.67 (2)	60.06 (3)	272.76 (6)	203.03 (6)	56.85 (2)	237.65 (4)	238.83 (6)
3~10町	53.97 (10)	42.44 (8)		84.55 (17)	22.14 (5)	7.55 (1)	63.91 (12)	36.60 (7)	13.69 (2)
1~3町	66.52 (40)	18.47 (10)	7.53 (4)	44.86 (27)	19.28 (12)	5.09 (3)	57.28 (33)	23.32 (15)	3.93 (3)
0.5~1町	29.91 (43)	5.20 (7)	0.90 (1)	25.04 (37)	7.54 (10)	1.46 (2)	21.06 (30)	9.45 (12)	3.01 (4)
0.5町 미만	36.68 (382)	3.41 (22)	0.96 (4)	27.36 (347)	4.52 (26)	0.81 (5)	28.50 (327)	5.22 (26)	1.28 (6)
계	345.70 (479)	377.20 (53)	50.06 (11)	241.87 (431)	326.24 (59)	217.94 (17)	227.61 (404)	312.25 (64)	260.74 (21)

주: 1) 괄호 안은 인수임.

2) 기타는 法人, 國有地 등 포함.

3) 1940년과 1945년치는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1945년치 대신 '1940년치' 사용.

을 보이며 미약하게나마 증가하고 있다.

조선인 1정보 미만층의 동향을 보면, 분석 전 기간에 걸쳐 소유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1914~1930년간의 경우가 1930~1945년간보다 감소경향이 더 두드러진다. 이는 0.5정 미만층의 급감에 의한 것인데, 이 계층에서 무토지 소작농민이 양산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일본인 영세 토지소유자의 경우 분석 전 기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가 연출되어 조선인과 커다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식민지기 춘포면에서는 정체적인 소유분화가 연출되는 가운데, 민족별 분화상황에서는 조선인의 토지상실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일본인(기타 포함) 중심의 식민지지주제가 강고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동의 강도는 1930년대 이전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그런 의미에서 문제의 시기인 식민지 후기(1930~1945)는 지주제의 조정국면, 정체기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지주적 토지소유를 중심으로 식민지지주제의 추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천착해 보기로 하자.

〈표 24〉와 〈표 25〉는 1930년대 이후 춘포면 내 10정보 이상 지주층의 동향을 살펴본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10정보 이상층은 소유면적에서 530정보대

〈표 24〉 춘포면 내 10町步 이상 지주층의 동향

(단위: 町步)

1930년		1935년		1940년		1945년	
지주명	면적	지주명	면적	지주명	면적	지주명	면적
細川護立	168.5	細川護立	163.5	細川護立	161.8	細川護立	162.4
國	59.9	國	107.4	國	114.9	國	109.6
殖産銀行	38.9	金和炯	49.1	金琪坤	46.5	金琪坤	46.5
金和炯	36.9	全北商社	34.8	全北商社	34.4	朝鮮信託	42.1
全北商社	34.8	今村一次郎	29.3	朝鮮信託	32.8	全北商社	35.7
今村一次郎	32.0	佐伯吉三郎	28.5	今村一次郎	28.2	今村一次郎	28.2
佐伯吉三郎	28.4	東拓	26.6	佐伯仟春	28.0	佐伯仟春	27.7
東拓	25.2	朝鮮信託	19.9	東拓	26.4	東拓	26.4
改修組合	22.9	赤木峰太郎	19.7	赤木峰太郎	19.7	三枝守文	20.8
二葉社	21.4	二葉社	18.4	二葉社	18.4	二葉社	18.4
赤木峰太郎	21.4	殖産銀行	12.3	殖産銀行	11.9	金甲生	10.3
李寬鎬	12.8	李寬鎬	10.8	金甲生	10.3		
森菊五郎	11.9	金甲生	10.3				
佐伯敬雄	10.7						
金甲生	10.4						
15명	535.9	13명	530.7	12명	533.3	11명	528.2

〈표 25〉 춘포면 내 10町步 이상 지주층의 浮沈 양상

浮沈	1914~1920	1920~1925	1925~1930	1930~1935	1935~1940	1940~1945
진입	5	6	4	1	2	1
탈락	3	5	4	3	3	2
유지	9	9	11	12	10	10

주: 탈락자+유지자=전년도 지주수, 진입자+유지자=금년도 지주수.

에서 정체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細川護立이 분석 전 기간에 걸쳐 압도적인 차이로 소유면적에 있어 지역 내 최대 지주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구성비로 환산하면, 細川護立의 소유지는 10정보 이상층의 30% 가량을 차지하기에 이른다. 이어서 國有地가 1930~1935년간 2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음이 인상적이다. 전술한 만경강 하천개수공사(익산천 포함)에 기인한 것이다.

1930~1945년간 소유면적이 고정되어 있는 가운데 10정보 이상 지주수는 감소하고 있다. 1930년 15명이었던 10정보 이상층은 1945년까지 11명으로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전술한 국유지의 증가와 함께 지주층 내부에서 소유분

〈표 26〉 전익수리조합 구역 내 10정보 이상 지주면적의 추이

1913년		1930년	
地主名	面積(町)	地主名	面積(町)
細川農場	476.76	細川護立	464.20
白南信	86.03	國	142.92
金鍾斗	83.79	(株)二葉社	102.83
岩崎久彌	67.13	(株)東山農事	79.07
洪鐘誼	64.19	今村一次郎	70.96
今村一次郎	58.13	白寅基	63.99
大橋與市	46.33	朴基順	49.57
金玉培	42.23	大橋農場	33.43
申彦兌	32.79	佐伯吉三郎	26.34
大池忠助	21.81	森菊五郎	21.89
朴基順	19.40	細川清若	19.96
金駿熙	18.33	洪鐘桂	19.24
(株)東拓	17.00	佐伯芳吉	18.85
洪在善	16.77	金駿熙	14.35
菱田平兵衛	16.09	赤星重繼	13.35
崔俊植	11.83	金和炯	13.25
		金甲生	12.07
		(株)東拓	11.07
		申東起	10.60
16人	1,078.61	19人	1,187.94

자료: 『全益水利組合重要書類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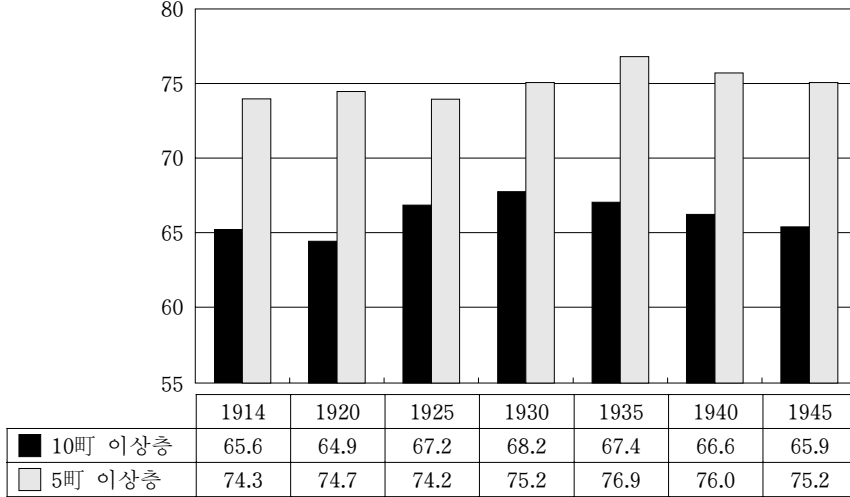
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표 25〉를 통해 지주층의 동향을 보면, 식민지 전기(1914~1930)까지 10정보 이상층으로의 入出이 빈번한 반면, 식민지 후기(1930~1945)에는 소강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경제적 소유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朝鮮信託(株式會社)은 10정보 이상 지주층에서 방매한 경지를 대량으로 매입해 1935년 이후 그 소유면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19.9→32.8→42.1町). 여기에는 조선신탁 이외에도 적지 않은 일인 소유 기업체가 엮여있다.

〈표 26〉은 춘포면을 포함한 전익수리조합의 전 구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식민지 후기를 대상으로 한 〈표 24〉를 증보하는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는 식민지 전기(1930년대 이전) 당해 지주의 실제 소유면적에 近似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 내 최대지주인 細川農場은 1913년 현재 476정보를 소유하고 있다. 1930

(단위: %)



〈그림 1〉 촌포면 내 지주층의 소유집중도 추이

년대 이후 소유변동의 주요인 가운데 하나인 국유지는 1930년 현재 142정보이다. 민족별 구성을 보면, 1913년 현재 조선인은 9명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1930년도에 이르면, 인수에 있어서 7명으로 감소하고, 특히 소유면적에서 일본인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었다. 식민지지주제의 특성이 이미 이 시기부터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그림 1〉은 지주적 토지소유를 중심으로 지주층의 추이에 대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한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는 10정보 이상층만을 지주층으로 삼았으나, 여기서는 표본면적을 고려하여 5정보 이상층의 추이도 살펴보았다.

1914년 이래 10정보 이상층의 장기추이를 보면, 토지소유 집중도 면에서 65%대에서 정체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전반까지 일정한 변동양상을 보이지만 평활한 분화구조에는 변함이 없다. 이같은 추이는 5정보 이상층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여기서는 불과 1~2%의 미약한 편차가 확인될 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첫째 지주층의 소유집중도는 1930년대 전반 소화공황 이후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결코 감소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며, 둘째 촌포면에서의 지주층의 원형은 토지조사사업 이전 단계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사실과 관련해 지주층의 중핵을 이루고 있는 일본인 지주층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7〉은 구 익산군 내 주요 일본인 農場의 創業시점을

〈표 27〉 익산군 내 주요 농장일람

農場名	所在地	創業年月	經營者
今村農場	春浦面 大場村里	1896. 3	今村一次郎(益山郡農會副會長)
片桐農場	黃登面 黃登里	1907. 4	片桐和三(舒川水利組合長)
板井農場	益山面 裡里	未詳	板井信藏
田坂農場	春浦面 龍淵里	1897. 7	田坂佐三郎
西岡農場	金馬面 東古都里	1909. 2	西岡穰
永田農場	益山面 銅山里	1925. 5	永田忠太郎
東拓農場	益山面 裡里	1908. 12	佐佐木久松(裡里支店 支配人)
右近農場	益山面 裡里	1926. 12	森山治郎平(右近商社 南鮮出張所長)
細川農場	春浦面 大場村里	1904. 9	永原邦彦(侯爵細川家朝鮮農場主任)
大橋農場	益山面 裡里	1907. 10	山崎增平(大橋與市農場主任)
華星農場	益山面 裡里	1911. 11	青田竹治(白寅基農場主任)
三重農場	益山面 裡里	1917. 5	阿波榮一(諸戶清六農場主任)
不二農場	五山面 五山里	1914. 5	佐藤福太郎(不二興業全州農場主任)
眞田農場	五山面 松鶴里	1904. 4	眞田壽助(眞田尙治農場主任)

자료: 木原壽 編(1928), pp. 42~43.

살펴본 것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1920년 會社令 이후 個人 名의의 농장을 法人 農事會社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먼저 일본인 지주들의 창업시점에 주목하면, 총 14명 가운데 8명이 ‘습邦’ 이전에 익산군에 來住해 농장창업을 완료하고 있다. 익산군에서의 식민지주주의 원형은, 永田農場, 右近農場, 三重農場 등 일부를 예외로 한다면, 일본인 지주들이 이 지역에 들어와 농장을 창업한 토지조사사업 이전에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춘포면에 농장소재지를 둔 今村農場(1896년), 田坂農場(1897년), 細川農場(1904년)은 露日戰爭(1914~1905) 이전에 소작제 농장을 창업한 식민 1세대에 속한다. 전술한 전익수리조합이 1910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창설되었던 요인도 이와 같은 일인 중심의 지주적 토지소유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 V. 결 론

이 글에서는 전북 익산군 춘포면을 사례대상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토지대장을 통해 지주제의 추이(1914~1945)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최근 식민지근대화론이 주장하는 지주제 ‘위기론’을 기각하고, 기존의 통설인 ‘심화론’과 ‘재편론’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 글은 조그마한 사례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사례대상의 전형성, 식민지배의 상징성 때문에 가볍게 다루기 어려운 것이다.

사례의 대상인 익산군과 춘포면은 개항장 군산의 배후 농촌지역으로서 한국 최대의 곡창지대인 전북 평야부 도작지대에 속한다. 익산군은 1899년 군산의 개항 이후 일본인의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철도 및 도로가 건설되고, 시가지가 조성되면서 급속한 개발 붐을 타게 되었다.

1910년에는 全益水利組合이 설치되고, 1925년부터는 萬頃江 改修工事が 장기간의 산업정책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개발적 요소는 이 일대의 농업환경을 크게 변모시켰다. 이러한 농업기반사업을 통해 이 지역의 고질적 문제인 수해와 한해가 구제되었고, 경지의 질적 상태가 호전되어 미곡생산량이 급증하고, 경지의 분할이 가속화하면서 보다 집약적 농업을 위한 호조건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이 같은 경지의 질적 제고는 주로 일본인 소유의 低收量地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수리안전담으로 전환된 일본인 소유의 경지는 소유권 변동 없이 일본인의 손에 그대로 존속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조선인 경지는 소유권 변동의 대상이 되어 결국 일본인 및 일인계 법인에 방매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춘포면에서는 조선인 토지소유자의 토지상실이 진행되면서 일본인 중심의 식민지지주제가 더욱 발전하였다. 1930년대 전반 농업공황을 즈음하여 지주제[지주적 토지소유]는 이전 시기와는 달리 정체상태를 보였지만, 지주층의 토지소유집중도로 보는 한 식민지지주제는 높은 수준에서 감소하지 않은 채 지배적인 생산관계로서 견고하게 존속하고 있었다. 이는 1930년대의 농민지지적 농정이 일인 중심의 지주제를 제어하는데 사실상 무력했으며, 동시에 1940년대 초부터 전시경제의 영향도 커지고 있던 저간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 제시된 익산의 지주제 추이는 전북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적 경향과도 일치한다. 1918년부터 1942년간 매크로 통계를 참고하면, 전국의 소작지율은 1918년 50%대에서 1920년대 말 55%대로 급증하고, 이후 漸增하면서 1942년 58%대에 이르고 있다.<sup>28)</sup> 중요한 사실은 1930년대 이후 소작지율의 증가율

28) 전국의 경지면적에 대한 소작지율의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18년 2,190千町步(50.4%), 1919년 2,173(50.2), 1920년 2,195(50.8), 1921년 2,173(50.3), 1922년 2,183(50.6), 1923년 2,180(50.4), 1924년 2,182(50.5), 1925년 2,199(50.6), 1926년 2,222(50.7), 1927년 2,373(53.3), 1928년 2,406(54.0), 1929년 2,451(55.0), 1930년 2,481(55.5), 1931년 2,501(56.1), 1932년 2,515(56.4), 1933년 2,527(56.3), 1934년 2,528(57.2), 1935년 2,570(57.1), 1936년 2,585(57.4),

은 감소하고 있지만 그 절대치가 감소하지 않은 채 점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익산군 춘포면에서 지주제의 원형은 합방 이전 日本人의 來住, 農場創業이 완료된 시점에서 사실상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토지대장상에서는 1910년 전 익수리조합사업의 영향력도 그다지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1914년 토지조사사업 査定시점에서 사업의 영향력이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지주층은 단순히 경제적 힘에 의해서만 존재한 것은 아니며 식민지라는 정치적 상황에서 식민통치의 안정을 위한 체제유지의 동반자로서 존재하였다. 따라서 식민지지주제의 쇠퇴는 지주제의 중핵을 이루고 있는 일본인의 이주, 즉 해방 이후에야 개시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지주제는 해방 이후 비로소 축소국면에 들어서고 1950년 농지개혁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체되고 있었던 것이다.

## 참 고 문 헌

- 木原壽 編, 『益山郡事情』, 1928.  
山下英爾, 『裡里案内{一名益山發展史}』, 1927.  
越智唯七, 『新舊對照府郡面里洞名稱一覽』, 1917.  
익산군지편찬위원회, 『益山郡誌』(上·下), 1981.  
益沃水利組合 編, 『益沃水利組合之事業』, 1923.  
全北農地改良組合, 『全北農組70年史』, 1978.  
朝鮮總督府 編, 『朝鮮河川調査書』, 1929.  
\_\_\_\_\_, 『土地改良事業の概況』, 1932.  
\_\_\_\_\_, 『朝鮮土木事業誌』, 1937.  
\_\_\_\_\_, 『朝鮮窮民救濟治水工事年報』, 各年版.  
朝鮮總督府 內務局 編, 『朝鮮直轄河川工事年報』, 昭和四年度~昭和十年度.  
朝鮮總督府 內務局 社會課 編, 『大正八年旱害救濟誌』, 1925.  
朝鮮總督府 內務局 調査課 編, 『大正十四年朝鮮水害誌』, 1926.  
朝鮮總督府 司政局 社會課 編, 『昭和十四年旱害誌』, 1943.
- 28) 1937년 2,590(57.5), 1938년 2,608(57.8), 1939년 2,621(57.9), 1940년 2,607(57.8), 1941년 2,614(58.2), 1942년 2,610(58.3), 1944년 2,616(62.0). 1918~1936년간은 小早川九郎 編著 (1944); 1937~1942년간은 『朝鮮總督府統計年報』, 각 년판; 1944년은 朝鮮銀行 調査部 編, 『朝鮮經濟年報』, 1948년판 참조.

- 朝鮮總督府 殖産局 編, 『朝鮮の土地改良事業』, 1927.
- 朝鮮總督府 土木部 編, 『朝鮮の河川』, 1923.
- 朝鮮總督府 土地改良部 編, 『土地改良事業の實績』, 1934.
- \_\_\_\_\_, 『朝鮮土地改良事業要覽』, 1927~1941.
- 趙在燮·蔡守煥, 『益山の 傳來地名攷』, 益山文化院, 2000.
- 高在昱, 「萬頃江水系の 蛇行特性 研究」, 朝鮮大碩士論文, 1986.
- 金容燮, 『韓國近現代農業史研究』, 一潮閣, 1992.
- 金載勳, 「韓末 日帝의 土地占奪에 관한 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碩士學位論文, 1983.
- 南宮燧, 「萬頃江流域 水利地域の 水利慣行과 農村」, 서울大碩士學位論文, 1976.
- \_\_\_\_\_, 「河川流域一帶 干潟地上의 干拓聚落類型에 관한 研究—萬頃江, 東津江 流域을 事例地域으로—」, 서울大博士學位論文, 1990.
- 박 섭, 「植民地後期の 地主制—實態와 政策」, 『經濟史學』 18, 1994.
- 蘇淳烈, 「植民地後期朝鮮地主制の研究—全羅北道を中心に—」, 京都大博士學位論文, 1994.
- 이경란, 「日帝下 水利組合과 農場地主制」, 『學林』 12·13, 1991.
- 이승순, 「戰時期 朝鮮의 地主權 弱화와 地主經濟의 實態」, 『韓國史學報』 14, 2003.
- 李榮薰·張矢遠·宮嶋博士·松本武祝, 『近代朝鮮水利組合研究』, 一潮閣, 1992.
- 이중범, 「1915~45년 농지소유구조의 변동」, 『全南 務安郡 望雲地域 農村社會 構造變動研究』,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1988.
- \_\_\_\_\_, 「1915~1950년대 농지소유구조의 변동」, 『李在龔博士還力紀念 韓國史學論叢』, 1990.
- 이호철, 『농업경제사연구』, 경북대학교출판부, 1992.
- 張矢遠, 「日帝下 大地主의 存在形態에 관한 研究」, 서울大博士學位論文, 1989.
- 田剛秀, 「日帝下 水利組合事業이 地主制展開에 미친 影響」, 『經濟史學』 8, 1984.
- 鄭文鍾, 「1930年代 朝鮮에 있어서의 農業政策에 관한 研究」, 서울大博士學位論文, 1993.
- 鄭勝振, 「日帝下 水利組合의 財政健全化에 관한 研究」, 『經濟史學』 22, 1997.
- \_\_\_\_\_, 「일제시기 식민지주체의 기본추이」, 『역사와 현실』 26, 1997.
- \_\_\_\_\_, 『한국근세지역경제사』, 경인문화사, 2003a.
- \_\_\_\_\_, 「1930년대 羅州 榮山江 구역의 농업변동」, 『大東文化研究』 45, 2003b.

- 鄭然泰, 「日帝의 韓國 農地政策(1905~1945년)」, 서울大博士學位論文, 1994.
- 車基壁 엮음, 『일제의 한국 식민통치』, 정음사, 1985.
- 洪性讚, 『韓國近代農村社會의 變動과 地主層』, 지식산업사, 1992.
- 廣瀨貞三, 「植民地期の治水事業と朝鮮社會—洛東江を中心に」,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7, 1999.
- 宮嶋博史, 『朝鮮土地調査事業史の研究』,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1991.
- \_\_\_\_\_, 「朝鮮における植民地地主制の展開」, 『近代日本と植民地 3』, 岩波書店, 1993.
- 梶村秀樹 外, 『韓國近代經濟史研究』, 사계절, 1983.
- 松本武祝, 『植民地期朝鮮の水利組合事業』, 未來社, 1991.
- \_\_\_\_\_,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農業用水開發と水利秩序の改編—萬頃江流域を中心とし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41, 2003.
- 中村哲 著, 安秉直 譯, 『世界資本主義와 移行的 理論』, 比峰出版社, 1990.
- 淺田喬二, 『(增補)日本帝國主義と舊植民地地主制』, 龍溪書舍, 1989.
- Kim, Chul-Kyoo, “Capitalist Development, the State, and the Restructuring of Rural Social Relations in South Korea,” Ph.D. Diss., Cornell University, 1993.
- Koo, Hagen(ed.),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 Lee, Hoon K., *Land Utilization and Rural Economy in Korea*,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36(國譯本: 『朝鮮農業論』, 漢城圖書株式會社, 1935).
- Wade, Robert, *Irrigation and Agricultural Politics in South Korea*, Boulder: Westview Press, 1982.

[Abstract]

## The Trend of Colonial Land-lord System in *Iksan* Province, 1914~1945

Seung-jin Chung

Since colonization in 1910 the Korean agricultural society has been characterized as a food-supplier and exposed the situation inter-contradiction between the sudden rising in agricultural production and deepening of peasant poverty. It is natural for researchers to focus on the “Trend of Colonial Land-lord System” because such that situation were controled by a Colonial Land-lord System. This article throughly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agricultural policy on Colonial Land-lord System (1914~1945) through the case study of *Iksan* province which is an agricultural area as supporting the *Kunsan* open port.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which is *Iksan* and *Chunpo-Myun*, belongs to the *Chun-buk* rice farming belt, as the largest rice basket of the country. Since 1899 when the Japanese opened the part in *Kunsan*, *Iksan* Province faced rapid development boom relatively early with the construction of road, railway and the formation of the city, etc.

In 1910, *Cheonik* Irrigation Association was built and after the mid 1920s *Mankyung* river improvement was carried out as a long-term industrial policy. With theses development factors the agricultural situation changed for the better all over the district. Like that development factors change for the better agricultural situation all over the district. The quality of arable land changed, the quantity of production increase and the partition of the land made a positive condition for more intensive farming.

But, on the other hand with the expansion of the colonial land-lord system led by Japanese more land was lost for the Korea peasant within the region. Even though the land-lord system was stagnant in time of the agricultural panic in the early 1930s, so far as only in view of the land-ownership concentration ratio index, the colonial land-lord system had been keeping influential as a principal relative production in Korea.

176 식민지 지주제의 동향(1914~1945)

**Keywords:** *Cheonik*(全益) irrigation association, *Mankyung*-river(萬頃江) improvement, division of cultivatable land, colonial landlord system, the land-ownership concentration ratio index

**JEL Classification:** N5